



##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손님’에 대하여

---

저자 (Authors)	고운기
출처 (Source)	<a href="#">문학들</a> , (30), 2012.11, 24-40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삼미안</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311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3116</a>
APA Style	고운기 (2012).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손님’에 대하여. <a href="#">문학들</a> , (30), 24-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3 13:3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체에 빠진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로서는 못내 뒤가 무거워진다.

시바 료타로에게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책이 있다. 역사문화 기행문집인 『길을 간다』 시리즈이다. 전체 50권 남짓한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 『한국기행』이다.

그의 나이 49세 때인 1971년, 시바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언덕 위의 구름』의 연재가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언제까지나 의문으로 남아 있던, 과연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류를 찾아 본격적인 첫 발걸음을 땀 것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이른 곳은 한국의 김해였다. 『한국기행』은 그 여행기이다.

한국에서도 왜 하필 김해였을까? 가이드에게 시바는 농담처럼 말한다.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그냥 손가락으로 짚었는데, 바로 김해였다…….”

설마 그럴 리는 없다. 시바는 김해에서 일본인의 원류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으리라 믿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일본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과 관련이 있다. 서기 4세기 이전, 김해 지역은 고대 일본 왕국에 의해 식민통치를 받던 곳이며, 그때의 이름이 임나일본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 그것도 일부 학자의 잠꼬대 같은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이때라면 일본 내에서조차 고대 왕국이 성립되지 않았었다. 제 나라도 없는 형편에 무슨 식민지 경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시바도 이를 믿지 않았다.

다만 가야 일대에 일본인이 모여들고,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던 것만은 확실하다. 시바는 이런 측면에서 김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 열도에 아직 일본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던 즈음, 매우 많은 왜인이 이곳을 왕래하여, 그 가운데는 정착하여 살게 된 자도 있고, 그보다도



역사적으로 이름을 더욱 크게 날린 왕을 선조로 가진 일족은 여럿 있다. 신라의 김씨, 고려의 왕씨, 조선의 이씨 등……。 그러나 사라진 왕국 가야의 시조 김수로의 후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김해가 가진 지리적인 특성, 수로의 후손이 지닌 끈끈한 단결력 같은 것이 합하여 이뤄낸 결과일까.

### 이마니시 류가 찾은 가야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라는 일본인 학자에 대해 말해야겠다. 나고야(名古屋) 시 가까운 기후(岐阜) 현에서 태어난 그는 도쿄(東京) 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나중에 교토(京都)제국대학 사학과 교수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겸임교수를 지낸 사람이다.

당대의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사에 관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이 가운데 하나이다.

이마니시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애증이 겹친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작정 한국에 온 그는 경주와 김해 일대를 돌며 유적지를 샅샅이 훑었다. 애증은 그 공과(功過) 때문에 생긴다.

그의 눈에 걸려든 우리의 역사적 유적은 호화찬란하다. 1906년 경주에서 발굴한 여러 왕릉은 차치하고라도, 1916년 그가 찾아낸 점제현신사비는 한문과 우리식 글의 모양이 한데 어울린 귀중한 유물이면서, 이마니시 자신 필생의 발굴 업적으로 여겨진다. 그해 인사동에서 샀다는 『삼국유사』는 지금 일본의 텐리(天理)대학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은 대목이 있다. 유적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그는 아직 서툰 솜씨로 실수투성이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했다. 갓 서른의 숙련되지 못한 발굴자의 손이 세련될 리 없



있으며, 그 우두머리인 수로는 이를 바탕으로 만민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심지어 『삼국지』, 『위지』 등이전에서 한(韓) 조의 기록, 곧 이웃에 철을 수출했다는 나라의 한이 가야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이다.

부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서남부 지역의 가야연맹, 경남 창원 시 성산의 패총 등에서 철을 생산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창원시 다호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창, 칼 등의 무기류와, 팽이, 따비, 낫 등의 농기류가 발견되었다. 장식이 아닌 실생활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문명의 이전이 말하는 의미는 간단하다. 보다 강력한 세력의 탄생이다.

가야는 철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

철기가 청동기보다 단단한 재질을 제공한다는 점 말고도 문명의 수단으로 큰 공헌을 한 것은 다양한 활용도에 있다. 철로는 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었다. 우수한 무기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 못지 않게 생산력의 증강을 가져온 농기구는 더욱 큰 이익을 주었다. 단순 수렵이나 채집이 아닌 농업경제가 만들어진 기반에 철로 만든 농기구가 있었던 것이다.

앞서 한 말을 되풀이해 본다. 수로의 성인 김은 곧 철의 생산 책임자를 가리킨다. 철의 왕국을 만든 장본인이 수로이다.

## 정중히 맞아들이는 왕비

김해의 가락국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유사』가 거의 유일하다. 「기이」 편의 〈다섯 가야〉, 〈가락국기〉 그리고 「탐상」 편의 〈금관성 바사석탑〉, 〈어산불영〉 조가 그렇다. 『삼국사기』가 겨우 한두 줄, 그것도 다른 기록에 살짝 끼워져 희미하게 가야를 전해주고 있는 데 비해 참으로 풍성하다. 이는



신앙적인 의식의 형태인데, 천명사상과 노동과 협업이 어우러진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다.

얼마 뒤에 공중을 쳐다보았더니, 붉은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드리워졌다.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에 해같이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여섯 개의 알은 사내아이로 변화하는데, 그 가운데 ‘처음 나타났다’ 해서 이름을 수로(首露)라 지은 아이는 열닷새가 지나자 키가 9척이나 되었다.

그가 만든 나라가 가야국이다. 나머지 다섯 알에서 태어난 아이도 각각 다섯 가야의 왕이 되었다. 이때가 AD 44년이다.

그렇게 수로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뒤였다.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배가 북쪽을 향해 왔다. 배에서 내린 여쁜 여인이 육지에 올라 높은 언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예물로 드렸다. 수로의 왕비 허황옥(許黃玉)의 등장이다.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는 행위가 오늘날의 어떤 민속의식과 통하는지 잘 모르겠다. 성교(性交)를 통한 생산이라는 뜻에 가까울까?

그러자 왕이 나와 맞아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며, 왕비는 자신이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온 공주임을 밝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꿈을 꾸었는데, ‘가락국의 임금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 왕위에 오르게 한 자이니 그야말로 신성한 사람이요, 게다가 새로 임금이 되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 그의 배필을 삼으라’는 하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아유타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대체로 인도의 한 지방에 실재한 나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남부지방까지 진출해 있어서, 한반도의 남쪽 바다에 접한 가야와 교류가 가능했었다고 한다.

어쨌건 우리 역사상 첫 국제결혼의 엄숙한 의식은 남해를 예식장으로 삼을 만큼 장대했다.



이 흥미롭다.

석탑 실은 비단 돛배 붉은 깃발도 가벼이  
신령께 빌어 험한 파도 헤치고 왔네  
여기까지 이르러 한 허황옥만 도왔으랴  
오래도록 남쪽 왜구 드센 고래를 막아주었네  
載厭緋帆茜旆輕  
乞靈遮莫海濤驚  
豈徒到岸扶黃玉  
千古南倭遏怒鯨

처음 두 줄은 바사석탑의 유래담을 시화(詩化)한 것이다. 그것이 허황옥의 안전 항해를 도와준 영물(靈物)이었음은 셋째 줄에서 짐작하게 하는데, 다만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는 영탄(詠嘆)이 문제의 소재이다. 마지막 줄에서 ‘남쪽 왜구 성난 고래를 막아주었다’는 것이다.

‘남쪽 왜구’는 ‘성난 고래’에 비유되고 있다. 일본을 어떻게 고래에 비유했을까?

일본 고대 가요집인 『만요슈(万葉集)』에서 지금의 고래를 가리키는 말은 이사나(いさな)이고, 한자로는 경어(鯨魚), 경명(鯨名), 용어(勇魚), 부지어(不知魚)라고 적었다. 경(鯨)이 조(兆) 위의 경(京)이라는 단위어를 붙여 매우 큰 물고기를 뜻한다면, ‘용어’나 ‘부지어’도 글자의 뜻으로 말이만 들어진 경위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구지라(くじら)라고 읽는데, 이와는 별도로 에비스(惠比壽)라고도 한다.

에비스는 신이다. 칠복신(七福神)의 일종으로, 어부 옷차림에 오른손에는 낚싯대를 쥐고 왼쪽 옆구리에 그물을 안은 모습이 일반적이다. 또한 바

깎에서 들어온 도래신(渡來神)이고, 이것이 어업의 신으로 신격화되면 고래가 된다. 이 고래는 오늘날의 고래만이 아니라, 큰 고기를 일반적으로 가리켜 하는 말이었다.

일본에서 고래는 포획의 대상이면서 신앙의 대상도 되었다. 어부는 어군(魚群)의 안내자로서 고래를 그려 넣었고, 그 어군을 찾아내는 힘을 신성시하였다.

무엇보다 에비스는 표착신(漂着神)이다.

‘기착(寄着)한 고래’, ‘흘러온 고래’ 라고 불리는 표착 고래를 에비스라 부르고, ‘표착신 신앙’의 기원으로 여긴다. 특히 미우라(三浦) 반도나 노토(能登) 반도 그리고 사도(佐渡) 섬 등에 현저히 남아 전승되고 있다. 우리의 동해 쪽 마을이다. 표착한 고래의 도래는 칠포(七浦)를 윤택하게 하고, 몸을 바쳐 주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이 고래를 먹으면 흉년이 든다는 전승도 존재한다.

고래가 떠와서 생각하지 못한 부수입을 얻는다든지, 기근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어업기가 시작될 때 바다 가운데서 에비스의 신체(神體)로 여기는 돌을 주워오는 풍습도 있다.

에비스는 수신(水神)의 성격을 가지고도 있다.

본디 해안지역에서 해상의 안전이나 풍어 기원 등의 ‘어업의 신’으로서 제사지내고 있지만, 내륙에서도 하천이나 수원(水源) 가까이 있는 바위나 돌을 고래로 보고, ‘고래 돌’이나 ‘고래 바위’라고 부르며, 치수(治水)나 수원(水源)의 ‘물의 신’으로서 제사지내는 것이다.

에비스를 일본의 창조신화에 나오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아들 히루코노미코토(蛭子命)에 결부시킨 전승은 다소 비감한 느낌을 갖게 한다. 히루코노미코토가 물과 관련 있기 때문에 에비스와 맺어졌다.

이 전승은 13세기 가마쿠라(鎌倉) 시대 무렵에 나타난 것이다. 기기신화(記紀神話)에 보면, 히루코노미코토는 세 살이 되어서도 말이 나지 않았

기 때문에 버려졌다. 이 신화에 따라 히루코노미코토는 어딘가 다른 땅에 표착했다는 신앙이 생겼다. 그런데 바다에서 온 해신인 에비스의 모습과 일치했기에, 두 신은 같은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리가 없는 거대한 물체는 고래를 연상시킨다.

고래를 둔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없다. 섬나라 일본의 특색과 고래를 가까이 해 온 전통에서 이렇듯 풍성한 화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고래의 뼈를 신사의 입구에 세워 놓은 곳도 있다. 옛 기노쿠니(紀伊國)에 속하는 와카야마켄(和歌山縣) 타이지마치(太地町)이다.

이 마을의 아스카(飛鳥) 신사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신사인데, 여기서는 고래잡이의 수호신인 에비스를 제사지낸다. 그런데 입구의 도리이(鳥居)가 고래의 뼈로 되어 있다. 기록상으로 이 도리이의 역사는 1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88년에 간행된 이하라 사이가쿠(井原西鶴)의 『닛폰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蔵)』이다. 사이가쿠는 17세기의 대표적인 대중작가였다. 이 책에는 에도시대 대부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텐구(天狗)는 이에나 카자구루마(家名風車)」는 사이가쿠가 타이지(泰地)의 처자(妻子)가 불렀던 ‘손뼉 노래’를 찾아서 여행했던 이야기이다.

사가쿠는 이 글에서 에비스의 궁에서 있던 고래의 동골(胴骨)로 만든 도리이를 보고 놀란 일이나, 고래잡이의 명인 텐구 겐나이(天狗源内)의 활약상에 대해 썼다. 마을 사람은 이 기록에 의거하여 1985년에 고래 뼈 도리이를 재현하였다. 그로부터 11년 뒤, 뼈가 부식되자 미즈다니 세이(水谷誠) 씨에게서 기증받아, 1996년에 타이지 어상조합이 두 번째로 세웠다. 사이가쿠가 본 고래 뼈 도리이는 지금(3m)보다 3배 정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고래는 우리의 전통과 민속보다 매우 넓게 퍼져 있다. 상징적으로 알려진 사항만 위에서 열거했는데도 길고 다양하다. 다음 노래를 한 편 보자.



항해에만 있지 않았고, 왜구를 물리치는 데도 있었다는데, 마치 신라의 만 파식적 같아 보인다.

어쨌건 이 시에서 고래는 일본인을 비유하고, 노경(怒鯨) 곧 드센 고래로 표현했다. 일연은 왜 일본을 일러 ‘드센 고래’ 라고 했을까.

‘노경’은 경탄(鯨吞)의 뜻으로, 고래가 작은 고기를 삼키는 것과 같이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는 침략자에 비유한 말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찍부터 고래를 활생(活生)의 한 방편으로 여겨온 일본인이었다. 그러므로 일본하면 고래가 떠오르는 관습이 이때 이미 만들어졌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 일본을 먼 곳에서 온 손님 수로왕비가 막아 냈다.

### 질병을 막아 낸 처용의 얼굴

짙막한 한 편의 노래와 거기 따른 이야기가 수많은 학설을 제기하기로는 <처용가>를 따라갈 경우가 드물다.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의 핵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처용의 정체요, 둘째는 ‘노래하고 춤추며 물러났다(歌舞而退)’는 대목과 노래 마지막 구절의 해석이다.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세 부류의 학설이 있다.

첫째, 용신설(龍神說). 동해 용을 문면 그대로 신이라 본다. 다른 해석의 틀을 들이대지 않고, 기록 자체에 충실히 따른다. 용신신앙과 호국불교의 절묘한 만남도 이루어진다.

둘째, 무격설(巫覡說).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다. 헝강왕이 동해 울산 앞 바다에서 만난 용은 무당이고, 그런 까닭에 아들 처용 또한 무당이다. 왕정의 보조수단으로 사제무(司祭巫)의 역할은 신라 후기인 헝강왕 때까지 이어졌으리라 본다. 안개 가득한 변괴의 해소, 헝강왕과 용의 만남, 처용의 입궁 등은 잘 짜인 무속의식이다.



‘노래하고 춤추며 물리났다(歌舞而退)’와 노래 마지막 구절의 해석은 크게 둘로 나뉜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처용은 역신(疫神)과 잠든 아내를 발견한다. 이 기막힌 광경을 두고 처용은 ‘노래하고 춤추며 물리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노래의 마지막 구절 또한 ‘본디 내 것이지만 앗아감을 어찌하리오’라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처용의 승화된 체념적 태도이다. 이것이 도리어 역신을 감동하게 한다.

그러나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논의가 있다. 우선 가무이퇴(歌舞而退)를 ‘노래하고 춤추며 물리쳤다’로 본다. 퇴(退)를 물리친 것으로 보았다. 수동태냐 능동태냐,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강력한 힘을 가진 처용이 역신 하나 물리치는 것쯤 문제가 아니다. 그래야 처용의 얼굴을 붙여 전염병을 물리치는 풍속이 생겼다는 결론과도 맞는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 또한, ‘어찌 빼앗음을 하리오’ 곧 어떻게 빼앗아 가겠느냐 해석하였다.

문리(文理)로 본다면 후자의 해석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와 노래가 가진 미학적인 해석을 두고 지나치게 합리만 따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방문화의 소산으로 보면서, 다소 거칠며 소박한, 게다가 다문화의 아직 생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해볼 수 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수도문학의 숭고하고도 우아한 것의 ‘전략’한 모습을 ‘희극미’로 나타낸 것”이며, “지방문학의 희극미와 아이러니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여, “다음 시대인 고려에 <처용가>적인 요소를 물려” 주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처용가>는 촌스럽고 야한 이야기이며 노래다. 그러나 이 점이 도리어 해석의 틀을 넓게 하고, 살아 있는 기층민중의 풍속을 생생히 살피게 한다. 이는 <처용가>의 장점으로,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다.

어떤 해석이 되었건, 처용은 질병을 물리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